투데이 칼럼

새로운 형태의 신냉전과 한반도 미래

정 복 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신냉전은 미국, 소련 간 핵무기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뤘던 과거 냉전과 다르다. 신냉전의 갈등 양상은 더 복잡하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커졌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의 여파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북한도 핵보유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불안정한 관계와 북한의 호전적인 핵 야망 등이 겹친 불확실성의 시대다.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간 패권 갈등은 트럼프 시대 못지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회담은 '앵커리지 회전' 혹은 '한 판 싸움'이라고 부를 만 했다. 첫 상견례인데도 덕담은커녕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향해서 강펀치가 난무했다.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 갈 수 있는지를 짐작케 했다. 회담은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 두 명씩 참석해 '2 + 2 회담'으로 진행됐다. 원래는 각각 2분씩 공개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 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개 설전을 1시간씩이나 벌였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각각 2분 남짓 모두 발언을 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은 각각 16분과 4분 이상 발언했다.

발언이 길어진 것은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블링컨 장관은 신장, 홍콩, 대만 등 민감한 부분을 건들였다. 중국의 인권 문제도 꺼냈다. 중국이 세계질서를 위협한다고도 했다.

양제츠 국무위원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2020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플로이드 사건을 꺼냈다. 흑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야기가 길어졌다.

세계가 '신(新)냉전'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 냉전은 지난 1991년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종말을 고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신냉전 시대에 들어섰다.

20세기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이데올로기 경쟁에 따른 갈등 구조였다. 반면 신냉전은 탈냉전 이후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롯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에 맞서 러시아·중국이 연합해 대립하는 양상이다.

러시아 푸틴 정권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옛 소련 영향권의 회복을 노리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이미 '강한 미국의 부활'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했다. 트럼프와 푸틴 등은 세계를 하나의 격투장 혹은 전쟁터로 보았다.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이들 지도자들은 국수주의와 패권 지향적 성향이 크다.

미국과 중·러가 대결하는 '신냉전 벨트'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 설치를 확대하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대항했다. 러시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했다.

중국은 북한 핵 저지를 명분으로 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린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도 이를 거들고 있다.

동유럽에서는 미국 주도의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2017년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접경지인 벨라루스 일대에서 10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한 '자파드 17' 군사훈련을 한 바 했다.

이는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다. 러시아군은 2014년에 훈련을 빙자해 병력을 집결시킨 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주변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옆구리와 같은 우크라이나를 '비수'로 활용해 견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장비 공급을 승인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추진 중이다. 한반도는 과연 신냉전의 파고를 어떻게 대처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니 자유의 여신상 사진 찍는 사람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엘리스섬 방문객들이 '미니 자유의 여신상' 사진을 찍고 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해 축소판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선물한 것으로 높이 약 3m의 크기에 청동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 미니 여신상은 워싱턴DC로 이동해 프랑스 대사관 정원에 10년간 전시된다.

산업용 분무기로 더위 식히는 이라크 남성

지난 1일(현지시간) 이라크 바스라의 기온이 51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를 보여 한 남성이 거리에서 분무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푹푹 찌는 무더위로 이날을 공식 휴일로 선포했다.

사 설

고창 출신 악필의 대가 황욱

고창 출신 석전(石田) 황욱(黃旭.1898~1992)은 악필법(握筆法)으로 유명한 근대 서예의 대가이다.

호는 석전(石田)외에도 남고산인(南固山人)·칠봉거사(七峰居士)·백련산인(白蓮山人) 등이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1920년 금강산 돈도암(頓道庵)에 들어가 서예에 정진했다. 특히 왕희지(王羲之)와 조맹부(趙孟)의 법필을 중심으로 서예 공부를 했다.

1930년 32세 때 고향인 고창으로 돌아와 15년간 신위(申緯)를 사숙하며 서예에 더욱 정진했다.

한편으로는 육예(六藝)를 익혔다. 육예는 중국 교육의 주례(周禮)에서 이르는 여섯 가지 기예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말한다. 이는 각각 예학(예법), 악학(음악), 궁시(활쏘기), 마술(말 타기 또는 마차몰기), 서예(붓글씨), 산학(수학)에 해당한다.

석전은 육예를 익혀 거문고와 글씨에 마음을 의지했다. 그러면서 행서(行書)에 탁월한 경지를 이루었다.

그러나 환갑 이후인 1960년경부터 오른손 수전증으로 붓을 잡기 어렵게 되었다.

그는 왼손바닥으로 붓을 잡고 엄지로 붓 꼭지를 눌러 쓰는 악필법(握筆法)을 개발하였다.

악필의 악(握)은 〈 쥘 악 〉으로 〈 쥐다 〉〈 주먹 〉〈 손아귀 〉 등의 뜻이 있다. 〈 악할 악(惡) 〉이 아니다.

1994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는 북녘 땅의 아들을 찾기 위해 글을 써 보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간절했던 통일에 대한 염원은 작품 곳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근 전주에서 석전 선생의 회고전이 전주 청목미술관 개관을 맞아 열렸다.

80대 후반부터 향년 96세로 타계하기 전까지 남긴 작품 20여 점이 2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도내 어느 주민센터의 폭로사건

지난해 도내 어느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자신이 함께 근무하던 공무원들의 여러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가 제기한 의혹은 무려 15가지에 이르렀다. 주민센터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그를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폭로한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있고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지자체는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2명을 경징계, 4명은 주의, 또 다른 4명은 훈계를 요구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장애가 있는 직원의 편의를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을 문제 삼는 등 감사 결과가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1년 동안 이어진 공방은 주민센터 직원의 초과 근무 수당·출장 여비 지급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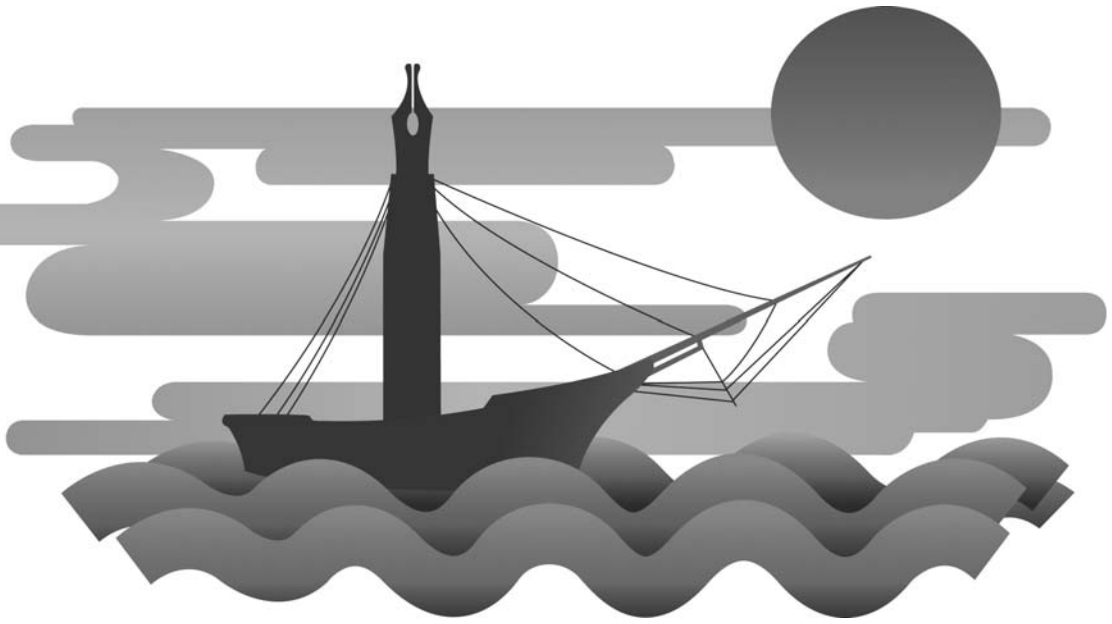
그리고 제기한 문제들 가운데 ▲초과 근무 수당 부정수령 ▲사회복무요원에게 금지된 개인정보 관련 업무와 현금 출납 관련 업무 지시 ▲업무 목적 외 관용차 사용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제기한 사회복무요원은 전체 복무 기간의 절반이 넘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을 떠나 서울로 근무지를 옮겼다.

주민센터를 발칵 뒤집어놨던 어느 사회복무요원의 '폭로' 사건은 검찰 수사와 지자체의 감사를 통해 일단락됐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감사로 이어져 지자체는 큰 내홍을 겪었다.

한솥밥을 먹는 직원들 간에 극한 대립을 몰고 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뒤끝이 결코 개운치 않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결말이 났다는 점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